



MG새마을금고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19일 충남 당진체육관에서 열린 2015전국가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3일째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MG새마을금고, 단체전 우승

(여자일반부)

전국가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

이장미 활약 속 김천시청 3-1로 잡고 정상
MG새마을금고·요넥스 男일반단체전 결승

2015년 셔틀룩 시즌을 결산하는 2015전국가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MG새마을금고와 신에 이장미(21)의 활약 속에 현역 '셔틀룩 여제' 이효정(34)이 버틴 김천시청을 꺾고 여자일반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MG새마을금고는 19일 충남 당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3일째 여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김천시청을 3-1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1단식에서 이장미는 열아홉 신인이자, 자신과 함께 차세대 기대주로 꼽히는 김천시청 이분과 상대했다. 이장미는 1세트를 21-12로 이기고 2세트도 21-16으로 마무리해 세트스코어 2-0 완승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MG새마을금고는 2단식에서도 김민희가 김천시청 정을교를 역시 2-0(21-9 21-13)으

로 꺾은 덕에 우승을 눈앞에 뒀다.

3복식에서 김천시청은 이효정 카드를 꺼내 반격에 성공했다. 이효정은 왼손 공격이 뛰어난 고현정과 짝을 이뤄 MG새마을금고 이장미-박정하를 2-0(21-9 21-12)으로 제압했다. 국가대표에서 완전히 은퇴했지만 여전히 세계적 선수로 꼽히는 이효정의 네트 플레이가 빛났다. 그러나 MG새마을금고는 4복식에서 황유미-김민경이 김천시청 최수지-이분을 2-0(21-11 21-17)으로 눌러 우승을 확정했다.

이장미는 20명의 여자국가대표선수 중 한 명으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이후 한국배드민턴을 이끌 기대주다. 국제대회 참가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팀 동료 성지현을 대신해 1단식 주자로 나서서 우승의 주역이 됐다.

남자일반부 단체전 준결승에선 이현일(35)이 이끄는 MG새마을금고와 요넥스가 각각 밀양시청과 광명시청을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선 한체대가 남녀 동반 우승을 달성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경기결과

(19일)

●2015 전국 가을철 대학 및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충남 당진실내체육관)
●남자 대학부 단식 2회전=권상현(경남과기대) 2-0 임원빈(동의대), 강병관(중앙대) 2-0 홍제표(중앙대), 이상원(경남과기대) 2-1 김우진(경남과기대), 김홍지(경남과기대) 2-1 윤영석(경남과기대), 강형석(동의대) 2-0 김경훈(경희대), 장현석(경희대) 2-0 이승민(경남과기대), 한승엽(백석대) 2-0 김홍성(초당대), 고경보(백석대) 2-0 신동현(초당대), 홍주표(중앙대) 2-1 채선국(초당대), 김동욱(동의대) 2-0 김휘태(백석대)
●여자 대학부 단식 1회전=최유리(조선대) 2-0 김혜지(동양대), 한소연(대진대) 2-0 윤태경(인천대), 김유정(부산외대) 2-0 배서현(한국국제대), 전단비(동양대) 2-0 송성하(부산외대)
●남자 대학부 복식 1회전=조성준, 김휘태(백석대) 2-0 김광희, 임원빈(동의대), 신동범, 정태인(경희대) 2-1 이요셉, 이상원(경남과기대)
●여자 대학부 복식 1회전=양인희, 조하영(대진대) 2-1 이혜슬, 김혜지(동양대), 한소연, 양수연(대진대) 2-0 김지향, 김현정(한국국제대)
●대학부 혼합 복식 1회전=홍승기(백석대), 노혜정(공주대) 2-1 박병훈(경희대), 홍현주(대진대), 이승민(경남과기대), 배서현(한국국제대) 2-0 조성준(백석대), 박선미(공주대), 정태인(경희대), 양인희(대진대) 2-1 이요셉(경남과기대), 김현정(한국국제대)
●남자 일반부 단체전 준결승전=MG새마을금고 3-0 밀양시청, 요넥스 3-0 광명시청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전=MG새마을금고 3-1 김천시청
●남자 대학부 단체전 결승전=한체대 3-1 백석대
●여자 대학부 단체전 결승전=한체대 3-1 부산외대

스피드 보다 목적타 서브 남자부 '플로터서브' 대세

스토리 발리볼 올시즌 서브 변화

리시브 약한 곳 등 집중공략 효율성 인정
삼성화재 그로저 괴력 서브, 에이스 1위
여자부 새 용병 기량 떨어져 서브도 약화

배구는 서브~리시브~토스~스파이크의 순서로 플레이가 진행된다. 배구인들은 "그 순서가 중요도 순서"라고 말한다. 서브는 다른 선수의 도움 없이 혼자 독점하는 유일한 기술이다.

서브 기록을 살펴보면 팀이 추구하는 배구의 색깔이 잘 드러난다. 지난 시즌 V리그 남자부 성적은 서브 성적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참고). 세트 평균 에이스 확률이 높은 팀의 순서대로 성적이 나왔다. 서브가 강해지지만 에이스도 많이 얻지만,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어서 자기 팀의 플레이가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유리하다.

17일 현대캐피탈은 KB손해보험의 '모아니면 도' 식의 강한 서브에 밀려 1~2세트 고전했다. 팀의 장기인 스피드 배구를 구사할 상황이 없을 정도로 리시브가 흔들렸다. 배구 감독들은 항상 "리시브가 승패를 가른다"고 말한다.

OK저축은행은 지난 시즌 특히 서브가 강했다. 시몬, 송명근이 강타 위주의 서브로 상대를 공격했다. 그 서브 덕분에 리시브 부담이 컸던 삼성화재의 8시즌 연속 우승의 꿈을 무너뜨렸다. 정규시즌에 그렇게 많았던 OK저축은행의 서브 법실이 챔피언 결정전에선 줄었다. 반대로 삼성화재의 목적타 서브를 OK저축은행 리베로 정성현과 송희재가 잘 버티면서 경기 양상이 달라졌다.

●플로터서브의 효율성이 커진 남자부

삼성화재 새 외국인선수 그로저는 18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2015~2016 NH농협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OK저축은행과의 홈경기에서 한 경기 최다 에이스 신기록(9개)을 작성했다. 종전 기록은 현대캐피탈 손 루니와 한국전력 정평호가 만든 8개. 그로저의 서브에 놀린 다덴담 챔피언 OK저축은행은 5연승에서 멈췄다. 팀의 장기인 속공을 평소보다 많이 살리지 못했다.

이날 경기는 상징적이었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파워보다는 정확도 위주의 목적타를 선호하던 팀이었다. 다른 팀들보다 세트 평균 1개, 팀 전체 평균 2~3개 범실이 적었던 팀이었다. 서브 법실로 상대에 점수를 주기보다는 높은 확률의 목적타 서브를 넣은 뒤 상대의 공격은 블로킹과 수비로 잡아내거나, 외국인 선수를 이용한 2단 공격으로 반격하는 것이 삼성화재의 공격 패턴이었다. 그런 삼성화재가 올 시즌 서브에서 눈에 띄게 변했다. 에이스가 세트 평균 0.96개에서 1.33개로 급증했다. 7개 구단 가운데 최고다. 그로저 덕분에다. 류윤식의 서브와 유광우의 플로터서브도 변화가 심해 상대가 힘들어한다.

남자부는 전체적으로 서브가 지난 시즌보다 강해졌다. 최근에는 스파이크서브보다는 플로터서브의 효율성이 각광받는다. 10년 이상 외국인선수들의 강한 스파이크서브를 받아온 국내선수들의 대처능력이 좋아지면서 스피드보다는 변화에 방점을 둔 플로터서브의 장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의 변화가 많아졌고, 원하는 곳으로 공을 때릴 수 있어 사이드 또는 엔드라인 근처로 붙여 넣거나 리시브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집중 공략하는 데 효과가 크다.

한국전력은 에이스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광인의 부상 후유증과 여러 요인들이 겹쳤다. 새 외국인선수 스토크에 대해서도 신영철 감독은 "공격에 비해 서브 능력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남자부에서 올 시즌 가장 서브를 공격적으로 넣는 팀은 대한항공이다. 그 덕분에 범실 비율도 가장 높다. 대체로 서브가 강한 팀은 상위권이지만 KB손해보험만 예외다.

●새 외국인선수제도 바꾼 여자부 약화된 서브

여자부는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 서브가 약해졌다. 유일하게 IBK기업은행이 세트 평균 에이스 비율이 증가했다. 나머지 5개 팀은 모두 떨어졌다. 새 외국인선수의 떨어진 기량은 공격성공률뿐 아니라 서브에서

팀	2014~2015시즌	2015~2016시즌
OK저축은행	1.22	1.21
삼성화재	0.96	1.33
한국전력	0.89	0.62
대한항공	0.85	1.06
현대캐피탈	0.78	0.77
KB손해보험	0.75	1.00
우리카드	0.64	0.80

팀	2014~2015시즌	2015~2016시즌
OK저축은행	3.80/6.00	3.44/6.81
삼성화재	2.50/9.34	2.53/9.38
한국전력	3.09/7.36	2.77/7.82
대한항공	3.41/6.70	3.74/6.13
현대캐피탈	2.77/8.09	3.18/7.29
KB손해보험	3.28/6.83	3.44/6.48
우리카드	2.84/7.41	3.09/6.77

팀	2014~2015시즌	2015~2016시즌
IBK기업은행	1.29	1.56
도로공사	1.50	0.93
현대건설	1.80	1.39
흥국생명	1.27	1.00
GS칼텍스	1.36	1.14
인삼공사	1.05	0.90

팀	2014~2015시즌	2015~2016시즌
IBK기업은행	2.22/9.98	2.33/9.79
도로공사	2.42/9.28	1.93/10.80
현대건설	2.33/9.58	1.63/13.48
흥국생명	1.60/9.31	1.48/14.12
GS칼텍스	2.27/9.37	1.57/14.00
인삼공사	1.87/10.99	1.58/12.76

※ 18일 현재

도 드러난다. IBK기업은행은 올 시즌 유일하게 서브 범실이 세트 평균 2개를 넘는다. 에이스가 늘어난 대신 실점 위험성도 커졌다는 얘기가.

뉴여객볼 팀은 도로공사다. 추락 폭이 크다. 니콜과 문정원의 공백 탓이다. 서브 잘 넣는 리베로 오지영도 예전 같지 않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올 시즌부터 새로 바뀐 국제배구연맹(FIVB) 룰에 따라 엔드라인을 종전의 8m와 새로운 6.5m 가운데 하나를 구단 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그 대신 한번 선택한 엔드라인은 시즌 도중 바꿀 수 없는 서브의 강도를 줄였다. 황연주도 "에이스를 만들려고 강하게 때리다 실점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넣어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 팀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금은 일부러 강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가장 서브가 공격적이었지만, 올 시즌 안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시즌 풀리는 많은 에이스를 잡아냈지만 범실도 많았다. 올 시즌 에밀리는 에이스와 범실 모두 적어졌다. 황연주도 최근 서브의 강도를 줄였다. 황연주는 "에이스를 만들려고 강하게 때리다 실점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넣어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 팀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금은 일부러 강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최근 서브 공격의 트렌드는 거리를 이용한 공략이다. 길게 또는 짧게 넣어 상대 리시버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위 공격수의 위치까지 짧게 날다가 갑자기 길게 넣는 서브에 수비수들이 애를 먹는다. 상대 라이트 공격수가 전위에 있을 때 최대한 짧게 목적타 서브를 넣어 발을 묶거나 세터로부터 이어지는 공격을 불편하게 만드는 공략법이 효과만점이다. GS칼텍스가 여자부 개막전에서 다덴담 챔피언 IBK기업은행을 3-0으로 완파한 원동력이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5세트 표승주 다이렉트킬...GS칼텍스, 대역전승

흥국생명 상대로 2연패 끊고 시즌 4승



올 시즌 나란히 4차례씩 폴세트를 경험했던 '폴세트 전문팀'들이 만나서 또 폴세트를 치렀다.

GS칼텍스는 1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NH농협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흥국생명과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18-25 21-25 25-22 25-15 17-15) 역전승을 거뒀다. GS칼텍스는 먼저 2세트를 내주고도 올 시즌 폴세트 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흥국생명에 시즌 3패째(5승)를 안겼다. GS칼텍스는 최근 2연패를 끊고 시즌 4승째(6패)를 따냈다. 5세트 15-15에서 흥국생명 테일러의 공격 범실에 이어 표승주의 다이렉트 킬이 GS칼텍스에 대역전승을 선물했다.

유난히 랠리가 많은 두 팀의 대결이었다. 1세트 두 팀의 균형이 깨진 것은 10점대 후반부터였다. 발을 보기 위해 미국에서 온 아버지를 관중석에 두고 테일러가 힘을 냈다. 왼쪽에서 큰 공격을 많이 성공시키며 흥국생명에 첫 세트를 선물했다. 10득점에 공격 성공률 53%를 기록했다. 2세트 GS칼텍스 한승이가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높이로 테일러를 마크하면서 캐텔이 힘을 냈다. 5점차로 앞서갔지만 흥국생명이 또 10점대 중반에 따라붙었다. 끈질긴 수비로 어지간한 공을 다 잡아낸 뒤 반격했다. 23-21에서 김수지



GS칼텍스 외국인선수 캐텔(가운데)이 1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홈경기 도중 상대의 블로킹 벽 사이로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장충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의 블로킹이 결정타였다.

세트마다 포메이션을 바꾸는 GS칼텍스 이선구 감독은 3세트 라이트 캐텔, 센터 한승이, 레프트 이소영을 전위로 내는 포메이션으로 흥국생명에 맞섰다. 흥국생명은 세터 조송화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8개의

범실이 나왔다. 강한 서브로 흥국생명의 리시브를 흔들며 주도권을 잡았던 GS칼텍스는 23-22에서 테일러의 공격 범실과 표승주의 오픈으로 한 세트를 만회했다. 리듬을 되찾은 GS칼텍스는 4세트 마음이 급한 흥국생명을 밀쳐감치 따돌렸다. 장충 |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인터파크,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 등 후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여형구 사무총장과 김양진 인터파크 ENT 부문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관리 서비스 부문 공식후원 협약을 했다. 인터파크는 올림픽 주요

클라이언트 그룹과 일반 관중을 대상으로 입장권 판매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입장권 시스템과 장비, 전문 인력 등을 제공한다.

20일부터 춘천서 전국남녀쇼트트랙대회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일부터 22일까지 춘천의암경기장에서 제32회 전국남녀쇼트트랙대회를 연다.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총 38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탈락한 공상정(고려대), 김지유(잠일고) 등 대표팀을 제외한 주요 선수들과 올해 10월 개최된 쏘니바 대회에서 전관왕을 차지한 김길리(성내초) 등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한다. 외국인선수 6명이 출전하는 번외경기도 펼쳐진다.